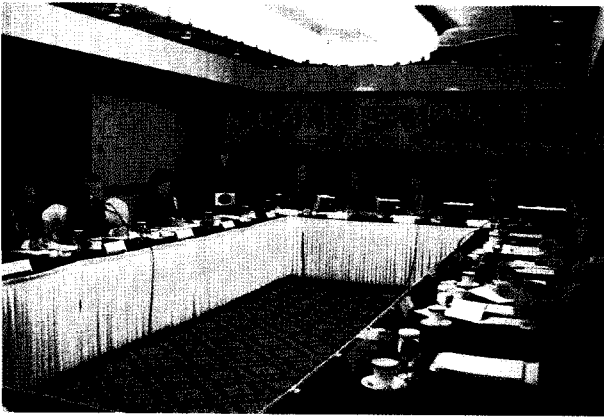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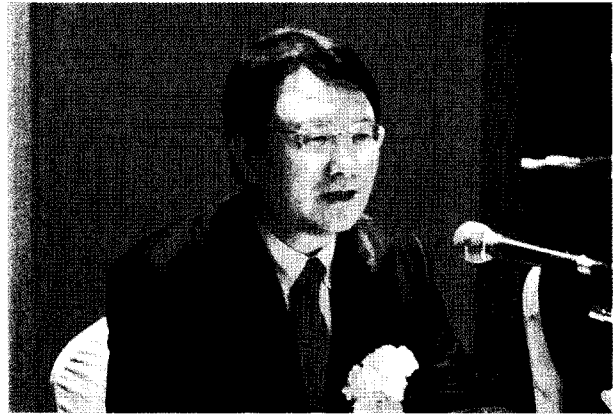


# 한국광학기기협회 200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임, 장기미수업체 처리 문제 중점 논의-



▶한국광학기기협회의 2009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부터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개회선언을 하고 있는 박종우 회장

**한** 국광학기기협회의 2009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는 성원보고와 함께 박종우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200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의결의 건(감사 보고), 회원사 제명 및 특별손실 처분(안) 의결의 건, 2008년도 잉여금 처분(안) 의결의 건,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의결의 건, 기타 안건으로 신임 회장 및 임원 선임 건이었다.

2008년도 사업보고에서 협회 및 회원 현황, 주요 사업이 보고 됐으며, 결산 보고에서는 결산 총괄표, 당기 예산결산 대비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2008년도 예산결산 대비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날 중점 논의된 안건은 박종우 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 선임 문제에 모아졌다. 임원사들은 차기 회장으로 삼성테크윈(주) 카메라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삼성디지털이미징(주)을 만장일치로 추천하고 신규 이사사로 삼성전기(주)를 추천했다.

이밖에 회비 장기미수업체를 비롯하여 임의탈퇴 및 제명업체에 대한 처리문제도 논의 되었다.

박종우 회장은 “회비 납부는 회원사의 의무이며 권리를 따져서 체납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협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회원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장기 미납업체에 대해 재명보다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 한국광학기기협회 임원 명단

업체명·가나다순

직위	업체명	대표자	직위	업체명	대표자
회 장	삼성디지털이미징(주)	박상진	이 사	삼성전기(주)	박종우
	(주)삼양옵틱스	이상운		에스엔유프리시전(주)	박희재
부회장	(주)신도리코	표희선		(주)이오시스템	이원승
	(주)이오테크닉스	성규동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김천주
	(주)캐리마	이병극		하나기술(주)	김도열
	한국전광(주)	채진석		(주)한국후지제록스	정광은
이 사	(주)디오스텍	박 일		해성옵틱스(주)	이을성
	부원광학(주)	박형기		(주)현대포토닉스	황윤호
	(주)산주	김기철		감 사	(주)한광옵토